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사단법인화

“좌선수행과 나눔실천 문화의 삶 선도 앞장서겠다” 다짐

대표적인 재가 참선단체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회장 이창훈, 이하 선도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8월 14일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선도회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좌선수행과 나눔 실천 문화의 삶을 선도하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설립인가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선도회는 14~16일 '성찰과 나눔'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이어 8월 22일 성남시립정성노인복지관에서 위문 음성공양, 생필품 전달 및 유쾌한 노년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선도회는 전국적인 지부 확장을 통해 사회문화 공동체 기반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 북동 분회를 중심으로 서울 8곳, 인천, 충북 제천, 전남 담양, 광주에 이어 대구, 부산, 경기, 강원 지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림목적에 따라 성찰실천운동 및 나눔실천운동 전개에 전력을 기울인다. 귀의삼사(歸依三師), 입실점검(入室點檢), 좌일주침(坐一走七) 수행가풍을 이어 정기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는 8월 14~16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성찰과 나눔'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노사의 유혹 하나를 해결할 것으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삶 속에서의 지속적인 성찰 실천은 바른 통찰체현으로 이어지고, 이 통찰체현을 원동력으로 나눔실천이 이어지지 않으면 통찰체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법사는 "지도법사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도회와 백전만겁난 조우의 희유한 인연으로 만난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깨워주거나, 꿈을 갖게 하는 일, 허황된 꿈을 버리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도회는 1963년부터 조계종 소속 단체로 출발해 철야정진, 정기 참선법회, 정기 수련회 등을 통해 선불교 수행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제1대 종달 이희의 지도법사의 유지를 받아 법정 박영재 교수가 제2대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며 17명의 법사와 200여 회원이 정진하고 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선종어록인 <무문관(無門關)>을 수행의 나침반으로 좌선 수행을 통해 생로병사와 사회 제반의 문제를 선불교 수행전통의 시각에서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02)2648-1090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 야단법석 참가기

“민들레꽃씨 같은 불광 되기를...”

“절집살림은 재가불자가 맡아하고 스님들은 수행에만 힘쓰면 어떻까요.” “바로 우리 실상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겨우 용돈을 얻어 쓰는 경우지요.” “언제 해제 경비로 나가는 스님의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생들에게 회향하심이 어떠신지...”

“아닙니다. 스님들이 더 많은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하고 돌아와야 한국불교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불교는 승려교육이 실종입니다. 조계종단의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타종교인들은 목회 장소에서 신도들과 약속하고 깨인데 절은 너무 냉랭합니다. ‘수행중’ ‘출입금지’ ‘묵언’ 등의 깃발 앞에서 대중들은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 위대한 불교사상이 25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린 토론과 동기유발의 덕화는 참으로 넉넉하였다. 또한 “어떤 관념도 남겨 놓고서는 바른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며 <금강경>의 본질을 재해석해 현실과 상통을 피하도록 신신당부했다. 해국 스님(전국선원 수좌대표)은 절차탁마의 삶과 체험적인 수행의 예를 들려

가 된 향봉 스님은 20년간의 침묵수행을 깨고 이제 남은 생을 회향하겠다는 결의로 사자후를 토했다.

스님은 “전생 내생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마음이 윤회할 뿐, 살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할 뿐,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수처자주(隨處作



왼쪽부터 이호신 화백, 법인 스님, 도법 스님, 성전 스님, 향봉 스님, 마가 스님.

‘지리산 야단법석’ 치열한 논의 교계 성찰 요구하는 간절한 바람

주어 그 회열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간혹선 제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관해’에서는 간혹선의 역사와 법통을 상기시키며 ‘법당이 낡아서 위험할 경우, 완전히 새로 짓는 방법과 고쳐서 손질하거나 가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건이 안 될 경우, 후자를 택해야 한다’며 ‘과정이 생략된 오늘의 수행풍토를 질타하며 인제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인 선지식을 모시고 통렬하게 자기 점검과 주의 주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은 실답고 신선했다.

먼저 “차마 오늘날의 불교 현실이 눈에 밟혀 병든 노구지만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노심초사 동참하게 됐다”는 무비 스님(움직이는선원 조실)의 설법은 진중했다. 실제 거동하기 어려운 중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법주회 회향한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경험과 반성’ 주제의 법문은 <금강경>을 재발견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발원이었다.

대중의 질의에 바로 답하지 않고 다시 대중에게 응답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열

도법 스님은 오늘의 야단법석이 진정한 ‘회염법회’요 ‘회염회상’이라고 강조하며 유아독존, 본래부처, 본래면목의 자신을 살피라고 주문했다. ‘본

래 부처와 팔정도’에서 수행과 삶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아보고(如實知見), 사실대로 실천(如實知見)행이 팔정도의 실행이라고 설파했다.

나아가 ‘모심과 섬김이 바로 생명의 법칙과 질서’이고 회염의 인도라망 세계 속에 함께 있을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싸울 것 싸우고 따질 것 따져야 가치의 의미를 지속해 갈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인성적인 사연으로는 향봉·도법 스님이 토론방식에 의의를 달아 새벽에 3시간이나 언쟁했다는 법거량의 아름다운 고백이 사부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한편 진정성 속에 승속을 초월해 만날 수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더욱 존중케 된다는 실감으로 모두 ‘복발’의 주인이요, 시절인연임을 찬탄했다.

이 다함없는 낮춤의 자세와 용기 있게 아픔을 드러내는 일. 이 결연한 의지가 지리산 야단법석으로 부터 발아됐으니, 부디 불꽃처럼 민들레꽃씨 같은 불광(佛光)이 되기를 서원한다.

해외약탈문화재 반환 “전국 거점병원에서 협력 봉사할 것”

중신회 CARA 등 조직

병불려 제4대 회장에 류재환 교수 선출

해외약탈문화재 반환에 청년 대학생들과 시민이 앞장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Culture Assets Redemption Agency, 이하 CARA)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시민탐방단’ 등을 조직하고 해외약탈문화재 환수 활동과 전통문화계승보급에 앞장 설 전망이다.

CARA와 시민탐방단은 약탈국 현지 방문, 반환 촉구, 현지 여론 조성, 전통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해외약탈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선다.

중앙신도회는 9월 9~23일 견지동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1층 갤러리에서 ‘해외약탈 문화재 기금마련전시회’를 열고 전시회 기간 중인 9월 12일에는 견지동 템플스테이 정보관 3층 교육관에서 CARA 발대식을 개최한다. (02)733-7277 이상연 기자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려, 지도법사 각광)는 8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류재환 교수(경희대 부속한방병원 동서협진실·사진)를 선출했다.

제3대 회장에 이어 4대 회장에 연임된 류재환 교수는 “회장단 이하 개편된 보직을 통해 회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 충청, 전라, 경상도, 강원 등에 거점 병원을 두고 협력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류 교수는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의 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포교와 신행 활동이 겸비된 병불려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 자비 실천행인 의료봉사에



교와 같이 불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때는 큰 자부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의료봉사단인 병불려는 전국 국립병원과 경희대, 동국대 일산병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연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

2009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전야제 9월 13일)

전야제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저녁공양

8시 삼귀오계 수계식

9시 국제고승 법문

10시 선지식초청 법문

밤 12시 철야 용맹정진

점안·봉불식

9월 14일 월요일

10시 ... 점안식

11시 ... 봉불식(본행사)

동참안내 연락처

제주도	약 천 사 064) 738-5000	다 도 투 어 064) 724-1185
경북·대구	은해사(영 천) 054) 337-3413	불광사(대구지) 053) 792-1181
	하양 포교당 054) 851-2315	불 립 사 054) 337-3413
경 남	진주 성전암 055) 754-7056	마산 현각사 055) 253-8656
부 산	법등회(금정구) 051) 523-1480	소림사(초 량) 051) 468-4497
	불 교 신 문 사 051) 806-4717	우 진 항 공 051) 468-7447
	금 강 정 진 회 051) 635-7878	
서 울	용 진 관 광 02) 2279-1191	011-730-6147
	· 13일 12:00 조계사 출발 ▶ 오후 1:00 점심역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 14일 6:30 조계사 출발 ▶ 오전 7:20 점심역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광 주	성 거 사 062-676-1080	

도락산 광덕사 회주 혜 인 합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30-1번지 / 전화 : (043)421-4700

이메일 : gwangdeoksa@hanmail.net / 광덕사 홈페이지 : www.84000.or.kr